

# ■ 2017년도 평창 문화올림픽 홍보를 위한 [서울스퀘어 미디어아츠 프로젝트 작가 선정회의] 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평창 문화올림픽 홍보를 위한  
[서울스퀘어 미디어아츠 프로젝트] 작가 선정회의
- 회의일시 : 2017. 6. 23.(금) 14: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2층 위원회의실

이번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G-200을 계기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미적 감상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 언론사, 미술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서울스퀘어 미디어아츠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후보 작가를 추천, 제한 공모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미디어 아트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온 중견 작가들을 대상으로 후보작가 추천(총 16명)이 이루어졌고, 이 중 공모에 참여한 9명(작품)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심의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작품이 평창 동계올림픽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고, 소주제인 '청년, 새로운 시도, 평창'이라는 키워드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심사위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청년들의 활기차고 진취적인 모습을 얼마나 잘 나타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둘째, 작품이 미디어 아트로서 갖고 있는 예술적 수월성이다. 이는 미디어 아트라는 형식 자체가 전문성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구현하는 예술 방식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평창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IT 강국인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의 예술수준을 보여 준다는 데에도 의미를 두었다.

셋째, 작품이 예술적으로 탁월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이다. 서울역 광장이나 새로 개통된 서울로 7017을 방문하는 일반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스펙터클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는가의 측면이다.

이상의 기준으로 응모한 9개의 작품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9개의 작품이 각각 다른 내용과 조형성을 갖고 있어 서로 어울려 전체적인 효과를 더할 것으로 판단하여, 9개의 작품을 모두 미디어 파사드 전시의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심사위원)들은 서로 다른 조형성과 내용을 선보이는 작품들을 일관성 있는 줄거리로 묶고, 전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여 대전시립미술관장과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전시 총감독 경험이 있는 이화여대 박일호 교수를 이번 프로젝트의 PM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미적 감상의 기회를 넓혀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스퀘어 미디어아츠 프로젝트 심의위원일동